■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 막12:28-34

Tag: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막12:28-34)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한 존재로 만드셨다.

물론 바쁘지 않는 현대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모른다.

자신을 매우 바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바쁨병이 있지는 않은지 검사해 봐야 한다.

항상 피로하는가, 자주 화가 나는가, 불면증이 있거나, 두통이나 속쓰림이 있다면 바쁨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바쁘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약은 없다. 놀라운 것은 바쁨병이 있는 사람들은

편한 삶을 불편하게 여긴다. 바쁘지 않으면 불안하고, 바쁜 것에 존재감을 느낀다. 일 중독에 빠져 살고 바쁘기를 자청한다.

물론 이들은 게으른 사람들보다 낫다. 바쁜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게으른 것은 죄다.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당연하게 게으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렇다면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바쁨병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해답을 준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하고 여쭈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이다. 바쁨병의 근본적 치료는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관한 지식과 훈련이다.

예수님은 즉시 대답해 주셨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다른 분은 없다. 하나님은 한분이시며, 그분은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다른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내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존재감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나의 나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녀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자녀는 부모가 사랑하기 위해서 낳았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자녀의 목적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이 다하기까지 사랑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

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가치있는 계명이다. 그런데 이 계명은 마지못해서 하면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단 마음으로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성실하시다.

물론 과거 우리의 삶이 한때는 처절하기도 했었다. 여기 저기 가정들이 깨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한국만큼 풍요를 누리는 나라는 드물다. 물론 미국의 백인들은 우리들보다 잘 살지만, 미국의 흑인들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한국인의 부지런함에 복을 주셨다.)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여기에서 둘째는 첫째 계명보다 덜 소중하다기 보다는 순서로서 두 번째라는 뜻이다.(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이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하겠다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다. 얼마만큼 선행을 베풀라는 것인가? 너 자신에게 베풀 만큼 그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래야 선행의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 자기는 안먹어도 이웃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의심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계명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이 서기관은 합격점수는 아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등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다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는 않도다.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긴 하지만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가능성은 있다. 지혜 있게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은 한분이시라는 것은 이해하였지만, 그 분이 곧 너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은 무관심했다. (오히려 더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은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서기관은 이 두가지를 '지혜를 다하여'로 살그머니 교체하였다. 하나님을 그정도까지 사랑하기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나보다. 또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은 제사 드리는 것과 비교 하였다.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물질적인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 어쩌면 구제활동 쯤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에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희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다. 정을 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을 주는 것이 익숙하다.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비교한 사람이 있다. 미국 드라마는 치밀하고 급격하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드라마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매우 흥미진진한거 같지만, 문제는 이야기가 끝이 없다. 지겹다. 보다 안볼수도 없고, 보자니 너무 길고.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서 줄거리가 생각나질 않는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는 길어봤자 20회 분량이다. 그리고 은근히 사랑이 시작된다. 사랑 이야기가 섬세하고 로맨틱하다. 미국처럼 활활 불타오르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의 안방을 따뜻하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민족이다. 왜 이것이 계명일까?

한국사람들의 국민 정서는 세계적이다. 감성이 뛰어나고 우수하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성을 귀히 여기시고, 이런 영성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아직은 더 성숙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자.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